발간자료

• **파생 바이위클리:** 상장 첫날 총 거래대금 9.8조원, AUM 4.9조원을 기록. 개인 순매수가 대부분으로 SK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1.2조원, 삼성전자 레버리지 상품 5,300억원 순매수. SK하이닉스 5월물 미결제약정의 경우 5/20 21조원 수준에서 전일 34조원까지 증가, 삼성전자는 13조원에서 16조원까지 증가. 26일 코스피 8,100pt 돌파 과정에서도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 1,000억원, 삼성전자 7,700억원, SK하이닉스 800억원 순매수하는 동시에 삼성전자 선물 700억원, SK하이닉스 선물 5,000억원 순매수. 주식선물 수요 증가로 베이시스 확대되며 금융투자 중심의 매수차익거래 유입. 현물 외국인 매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식선물 미결제가 급증했기 때문에 지수 상승의 질은 현물 기반 수급 개선보다 파생 익스포저 확대에 가까움. 6/11 선물옵션 동시만기일까지 스프레드 확대 유지될 시 근월물 롱포지션 유지 후 롤오버 과정에서 금융투자의 매수 차익거래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

(시황/파생 김지현)

• **전기전자:** FC-BGA는 단품 수요에서 시스템 수요로 확장. 공급 측면에서 Headline Capacity보다 실제 양품 Output이 더 중요. 실제 출하 가능한 유효 Capa 증가는 제한적. 사이클 지속 기간, 이익 체력 모두 과거 업사이클을 상회할 전망. AI 서버 인터커넥트 변화가 MLB의 적용 영역을 넓히는 중. 공격적으로 CAPA를 증설 중이나 고객 수요 확대 속도가 더 빠른 상황. 메모리 기판은 상위 업체에서 중위 업체로 낙수효과 확산 → 수요가 견인하는 기판 밸류체인 전반의 물량 재배분. SOCAMM2, 서버용 LPDDR 등 신규/추가 수요 긍정적. 하반기 최선호 영역은 기판과 MLCC로, 두 아이템 모두 긍정의 불확실성 구간. 주가의 정점은 타이트한 수급이 알려질 때가 아니라, 가격 인상과 27~28년 피크 이익이추정치에 본격 반영될 때 형성될 것. 삼성전기: TP 230만원 (BUY) / LG이노텍: TP 130만원 (BUY) / 대덕전자: TP 23만원 (BUY) / 기가비스: TP 17.5만원 (BUY)

(전기전자 김연미)

• **인터넷·게임·레저 하반기 전망:** 인터넷: AGI(범용 인공 지능) 달성을 위해 월드 모델이 거론되고 있음. 탭을 통한 검색 점유율 확대와 에이전트 기능 고도화 기대에 따라 NAVER Top-pick 제시. 알파벳의 Genie, 메타의 JEPA, NVIDIA의 Cosmos 플랫폼 등 해외 기업들은 월드 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며, 국내에서는 네이버, LG전자 컨소시엄, NC AI 또한 월드 모델을 개발 중. 게임: 국내 게임사들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 극복을 위해 펀더멘탈 강화 중이며 하반기 게임쇼 모멘텀 기대하며 크래프톤 산업 내 Top-pick 제시. 레저: 마카오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입국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호텔/카지노 부문 동시 성장 가능. 롯데관광개발 Top-pick 제시

(인터넷/게임/레저 김혜영)

• **녹십자_BUY/22만원:** 미국 관계사 큐레보 최대 15억달러 규모로 릴리에 매각. 일라이 릴리의 백신 포트폴리오 확대 전략. 녹십자 보유지분 20.3% 전량 매각으로 선급금 2억달러, 마일스톤 1억달러, 총 3억달러(약 4,599억원) 수취 예정. 아메조스바세틴은 싱그릭스 대비 동등한 예방 효과와 개선된 내약성을 확인. 2차 접종 이탈률개선 및 신규 접종자 유입을 통한 시장 침투 여력에 주목. 지분 매각 이후에도 로열티·CMO 수익 가능

(제약/바이오 이지수)

• **바이오다인_Not Rated:** 과거 세포 검체는 병리사가 육안으로 판독하는 시장이었으나, 바이오다인의 기술 기반으로 재현성 있는 세포 슬라이드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AI 기반 디지털 판독 시장의 개화 조건이 충족. 블로윙 테크놀로지와 AI의 결합으로 세포 단위 디지털 병리 가능성이 입증되면서 Non-Gyn으로의 제품군 확장이 현실화. 기술이전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입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로서 업종 내 관심종목으로 제시

(화장품/의료기기 박종현)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본 자료를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인수·합병의 주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서 추천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 현재 해당 기업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당사는 동 종목에 대해 자료작성일 기준 유가증권 발행(DR, CB, IPO, 시장조성 등)과 관련하여 지난 12개월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에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기업의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는 어떠한 외부 압력이나 간섭 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자료는 '나눔스퀘어'와 '아리따 글꼴'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투자등급 비율

BUY : 91.7%	HOLD : 8.3%	SELL : 0.0%

투자등급 관련사항

아래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기대수익률을 의미

- BUY: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 HOLD: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이상~ +15% 미만.
- SELL: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 미만.

투자 의견이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등급 기준과 일시적으로 다를 수 있음
동 조사분석자료에서 제시된 업종 투자의견은 시장 대비 업종의 초과수익률 수준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의견과 다를 수 있음

- Ov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Neutral: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Underweight: 해당 업종 수익률이 향후 12개월 동안 KOSPI 수익률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경우

주) 업종 수익률은 위험을 감안한 수치